

FI Weekly

채권 김지나
6148/jnkim0526@eugenefn.com

종전해도 인상이 가능한가?

“ 미국-이란, 종전 MOU 각서 합의. 현지시간 21일 스위스에서 MOU 서명에 대한 후속 실무급 회담이 예정.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언급했지만, 미국 측은 해협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스위스 회담을 앞두고 기대감 지속되며 국제유가, 70불~80불 초반으로 하락.

“ 이번 회담으로 종전이 마무리된다면 공급 측 물가 요인이 사라짐. 물리적으로 국제유가가 전쟁 전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인상을 두려워하던 것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음. 5월~6월 중순이 금융시장이 인상예에 대해 가장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시기였을 지도 모름. 그럼 의미에서 선반영된 인상 횡수는 종전 양상에 따라 점차 되돌려지며 금리 하락 요인으로 변화할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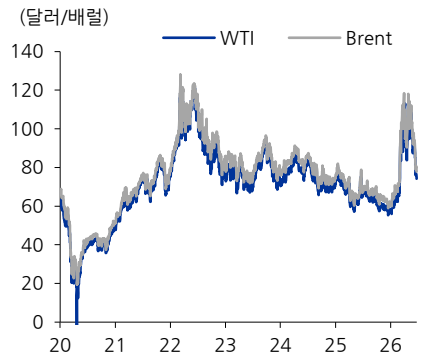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올해 인상이 미뤄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 연내 7월과 4분기 총 2번의 인상 전망 유지.

“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행의 인상예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 17일 열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는 미-이란 간 종전 합의로 유가 상방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간접효과, 2차 파급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 신현송 총재는 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 국제유가 안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러-우 전쟁 때 처럼 고환율, 고유가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확인될 것으로 전망.

“ 종전은 가변적이며 국제유가는 외부적 요소이므로 국내 인상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수요 측 물가에 대한 진단이라고 생각함. 한은은 5월 경제전망과 비교해 수요 측 물가 압력이 강해졌다고 판단. 주된 요인으로 향후 기업의 임금 협상을 언급. IT 업종 등 고액 성과급 기업이 늘면 물가 상승률이 약 0.05%p 상승할 것이라는 수치까지 제시. 실제로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기대, 가계수입 및 임금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일 변화 중. 그 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자산효과 등도 고려하면 국내 수요 측 물가 압력은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음. 종전과 별개로 국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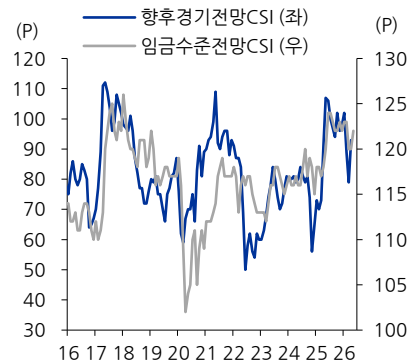
“ 금융 안정도 여전한 과제. FOMC의 매파적 태도로 인한 달러 강세는 직접적으로 수요 측 물가와 연결되어 있음. 부동산도 마찬가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되지 않고 있음. 최근 한은의 연구 중 주식으로 취득한 자본이득은 1년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 매매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음(상관계수 0.53). 본 성향이 유지된다면 최근 주식 시장 호조는 부동산 가격 하방을 지탱시켜주는 요소. 실제로 작년 5월 이후 서울 아파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가계의 주식채권매각대금이 부동산 매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함. 이는 결국 주식 호조의 자산효과 일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금융 불안정을 자극시킨다는 의미.

종전 합의에 따라 국제유가 70불대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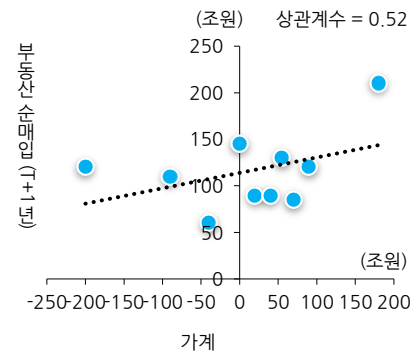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경기 및 임금 기대감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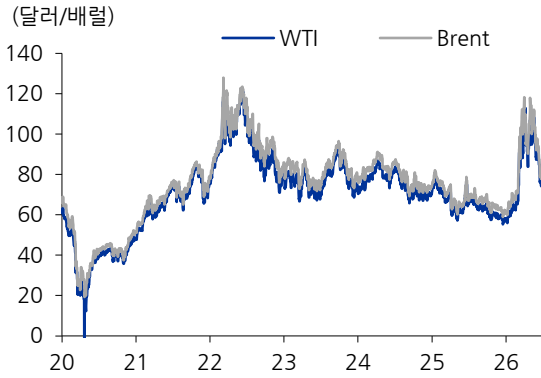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자본이득과 부동산 매매입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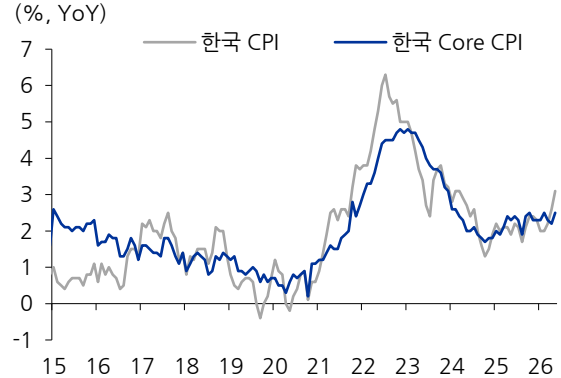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종전 합의에 따라 국제유가 70 불대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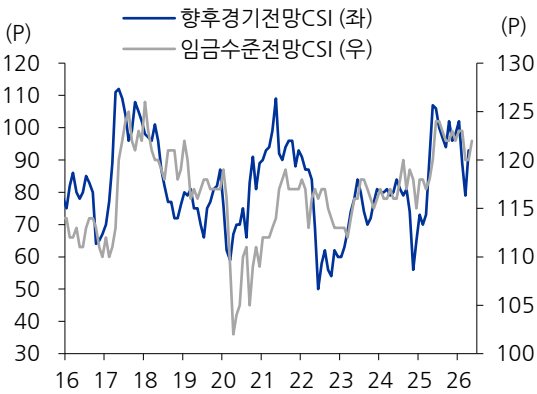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헤드라인 물가에 비해 근원물가 변동성 적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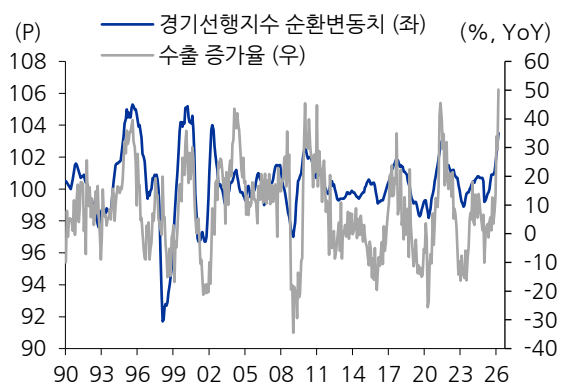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향후 경기 및 임금에 대한 기대감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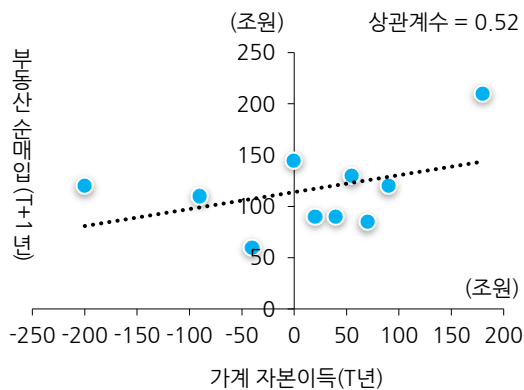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경기선행지수와 반도체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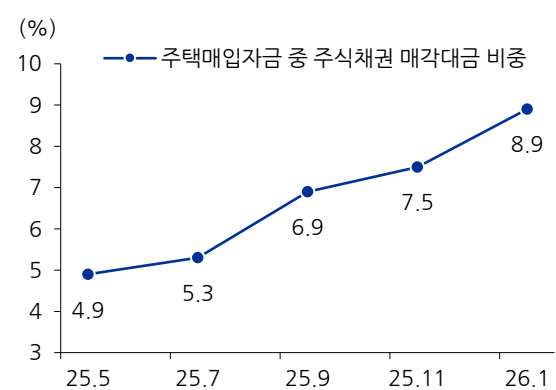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본이득과 부동산 순매입 간 관계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최근 주택매입 시 주식 등 매각대금 비중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